

1 보령시의회 자체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 2023년 주요 성과 공유 및 2024년 주요 계획 보고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는 지난달 16일 의회 회의실에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새해 각오를 다지며 지난 한 해 동안의 주요 성과와 2024년 주요 계획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상모 의장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 각 팀 별로 제출된 신규 시책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했다.

2024년 주요계획으로 ▲시민과 능동적으로 소통하는 제9대 후반기

원구성 ▲안전에 대한 사전 협의 강화로 집행부와 유기적 협조 체계 형성 ▲SNS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 ▲입법정책 과제 발굴 및 내실있는 의원연구회 추진 ▲화합하고 소통하는 의회 분위기 조성 등 다양한 신규 시책을 선보였다.

회의를 주재한 박상모 의장은 "각 팀의 지혜를 모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기반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며 창의적인 의정 방향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2 제256회 임시회, 5일간의 숨가쁜 일정 마무리

-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 등 17건 처리

- 조장현 의원 5분발언, 태양광발전 보급여건 조성을 위한 집행기관의 관심과 대책 촉구

갑진년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는 지난달 2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이달 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총 41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장현 의원의 태양광 발전 보급을 주제로 5분 발언이 있었다.

조장현 의원은 보령형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확대를 위한 시 자체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중에는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3건도 포함되어 있다.

백성현 의원은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증액과 의원 징계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규정하는 내용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정책연구 및 개발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했다.

김정훈 의원은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지역 상권 상생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및 지정 절차 등 상위법령에 맞는 관련 사항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보령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이 원안가결 됐다.



3 보령시의회, 설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가저

- 박상모 의장,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주변을 돌아보길 당부

보령시의회 박상모 의장과 의원들은 충남 정심원을 시작으로 정심요양원과 대천애육원, 이야기마을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4곳을 방문해 이용자들을 가족처럼 돌보고 있는 복지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등 복지시설의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박상모 의장은 "평소에도 소외된 이웃을 향한 온정의 손길이 절실하지만, 특히 가족과 고향이 생각나는 설 명절에는 보다 깊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면서 "소중한 일상을 위해 늘 우리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여러 복지시설 종사자 분들 덕분에 마음이 놓인다"고 고마운 마음도 전했다.

한편 사회복지시설 방문 이후에 이어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서는 웅천전통시장을 비롯한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명절 시장 경기를 점검하고 상인들을 격려하는 등 현장방문 활동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상인 및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가지면서 고물가 속 서민경제를 안정시키는 대책을 찾고, 침체된 소비심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